

콜로키움 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2차 콜로키움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콜로키움 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2차 콜로키움**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2차 콜로키움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콜로키움 25-02

I. '한국어교육'의 개괄

1.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의 정의와 개념 1
2. 한국어교육 역사(略史) 1
3. 한국어교육의 제도적 근거 2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KF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3
5.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4

II.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

1. 도입 배경 5
2.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성격 6
3.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목표 6
4. 한국어(KSL) 교육과정 적용 대상 학습자 7
5.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의 제도적 근거 7
6. 한국어(KSL) 교육과정 내용 체계 8

7.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체계	9
8. 한국어(KSL) 교육 담당 교원의 문제	10

Ⅲ.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

1. 교육부	10
2. 여성가족부	13
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4

Ⅳ.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안

1. 교육	19
2. 제도와 행정	21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홍 중 명(한국외국어대학교)

I '한국어교육'의 개괄

1.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의 정의와 개념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자, 그러한 학습자 대상의 교수학습 전반에 관한 교육적·학문적 활동
- 비모국어 화자 대상의 자국어 교육 체계
 -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 FLE(Français Langue Étrangère)
 - DaF/DaZ(Deutsch als Fremdsprache/ Deutsch als Zweitsprache)
 - ELE(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 대외한어(對外漢語)교육/국제중국어교육(TCSOL: Teaching Chinese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교육(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教育: Japanese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2. 한국어교육 역사(略史)

-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개설(최초의 대학 부설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기관)
- 1963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개설(1969년 한국어교육센터 개설)
- 1988년 서울 올림픽, 6공화국 북방정책(북방외교), 해외여행 자유화(1989년) 국내 대학교 한국어교육 기관 개설 시작

- 2001년 ‘한국어세계화재단’ 설립(정부 주도 한국어 보급 사업 본격화)
- 2004년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본격화
-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한국어 교육 관련 제도적 정비
- 2009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이주민·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육 확대
- 2012년 세종학당재단 설립(2007년 1호 세종학당 몽골 설립)

3. 한국어교육의 제도적 근거

- 국어기본법(2005. 1. 27 제정) 및 동법 시행령 안의 한국어 교육 관련 조항

제1장 총칙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0. 22.〉
- ②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4. 10. 22.〉
- ④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0. 22.〉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KF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KFL)은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을 말한다. 한국어교육 초기에는 곧바로 ‘한국어 교육’ 전체를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학습 환경에 따라 KFL과 KSL을 구분하여 쓰게 되면서, KFL은 한국어 사용 환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 KFL의 주요 학습자는 한국 밖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이들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제2외국어로 수강하는 학생, 한류 등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반인,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유학을 준비하며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등이 KFL 학습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체로 학습 환경상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이며, 교실 수업이나 온라인 학습 등 인위적 교수 환경에서 언어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수업 시간 외 일상에서는 목표어인 한국어의 노출과 사용이 대체적으로 적다. 이러한 이유로 KFL에서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론의 개발에 관심이 높다. 발음, 어휘, 문법, 담화, 문화 등 한국어의 다양한 지식 영역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 설계와 교재 개발이 중요하며, 학습자에게 제한된 시간 내 최대한의 언어 입력(input)과 연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KFL)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세종학당재단이 2012년 설립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해외 보급을 위한 공식 한국어 교육 플랫폼인 세종학당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세종학당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약 24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교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 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취업, 체류 자격 등을 평가하는 공식 시험으로서,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80개국 이상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시험은 KFL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점차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자격 제도도 운영 중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국립국어원이 자격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파견 교원 및

세종학당 전담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원 연수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 이외에도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재외동포청(구 재외동포재단) 등은 각국의 한국어학과 개설,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교재 보급 사업을 통해 KFL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현지인 대상 한국어 강좌 및 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5.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KSL)은 한국어가 주류 언어로 사용되는 사회(한국)에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을 뜻한다. 즉, 학습자가 한국이나 한국어 사용 환경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KSL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언어”란 화자의 모어가 아닌 다른 언어이지만 일상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익혀야 하는 언어를 지칭한다. KSL은 외국어로서 배우는 경우와 달리 학습자의 생활 공간이 곧 목표어 환경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학습자는 교실 밖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어에 노출되고 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 KSL의 대표적인 학습자는 한국 내 거주하는 이민자,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이주배경 청소년, 유학생 등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혹은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한국어 사용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KSL 교육은 사회통합과 적응을 위한 언어 교육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넘어, 한국 사회의 문화 및 관습 이해, 학업 및 직업 수행 능력, 대인관계 기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교육이 요구된다.
-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와 교육계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KSL 체계를 마련해왔다. 2012년 최초로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2017년부터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KSL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도 정규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제2언어로서 배우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KSL 교과는 영어권

국가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성인 대상 정책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어 교실 등이 운영되어 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을 돕는다. 이처럼 KSL 교육은 국가 차원의 다문화 사회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비모국어 화자에게 언어적 권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II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

1. 도입 배경

- ① 2000년대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해외에서 태어난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의 일반 학교 편입학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공교육 제도 내에서의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
- ②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는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2013년부터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고시
- ③ 2012년 7월 한국어 교육과정 고시 후 초, 중, 고 각급별 표준 한국어 교재(초급용, 중급용)가 개발되었으며, 2013년에는 한국어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진단도구 및 표준 한국어 교재의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되었고, 2014년에는 표준 한국어 교재 익힘책이 개발되어 보급되는 등 공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제대로 적용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지원들이 이루어짐
- ④ 2015년도에 기존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여 개정 교육과정을 2017년에 고시하고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가 개정됨
- ⑤ 한국 사회가 다문화·이민사회로 진입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이 공교육 체계 내로 편입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짐

2.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성격

- ①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여러 교과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설계됨
- ② 일반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은 일반적인 외국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지님
- ③ 일반 외국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Competence) 신장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학습 한국어 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까지도 함께 길러 주어야 하는 성격을 지님

3.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목표

2012년 교육과정	2017 개정 교육과정
①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한다.	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을 함양한다.
②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실 수업 상황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한국어 능력을 기른다.	② 모든 교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한다.
③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소통 능력을 기른다.	③ 학교의 교과 수업 상황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 적용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른다.
④ 한국 언어문화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적 삶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체성을 함양한다.	④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기른다.
	⑤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을 함양한다.

4. 한국어(KSL) 교육과정 적용 대상 학습자

2012년 교육과정	2017 개정 교육과정
<p>①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p> <p>②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인 어머니의 제한된 한국어 수준으로 인해 한국어 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여 학교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p> <p>③ 제3국 등을 통한 오랜 탈북 과정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탈북학생</p> <p>④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중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학교생활 적응이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p>	<p>‘한국어 과목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즉,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1언어로 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p> <p>또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 출신 부모 또는 모의 제한된 한국어 수준에 영향을 받은 학생, 제3국 등을 통한 오랜 탈북 과정을 거쳐 입국한 학생, 또는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중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 적응이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ESL: 제한된 영어 학습자(Limited English Proficiency),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 • 일본 JSL: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 학생’

5.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의 제도적 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한국어 교육과정’ 명시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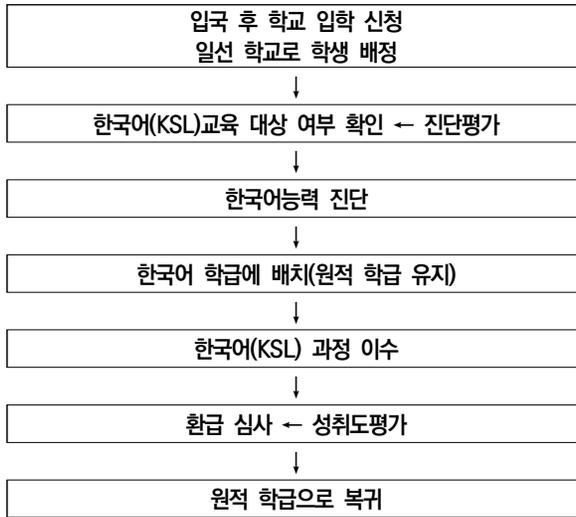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6. 한국어(KSL) 교육과정 내용 체계

- ‘생활 한국어 교육과 학습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 ‘초급(1~2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 중급(3~4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함께 ‘학습도구 한국어’를 병행 교육하며, 고급(5~6단계)에서는 ‘교과 적응 한국어’를 집중 교육

		생활 한국어 교육	학습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언어 기능		-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언어 재 료	주제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의사 소 통 기 능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어휘	일상생활 어휘 학교생활 어휘	교실 어휘 사고 도구 어휘 범용 지식 어휘	교과별 어휘
	문법	학령적합형 교육 문법	학령적합형 문식력 강화 문법	교과별 특정 문형
	텍스트 유형	구어 중심	구어 및 문어	문어 중심
문화		- 학령적합형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 학령적합형 학교생활문화의 이해와 적응		

7.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체계



- ① 학급 편성은 숙달도 수준에 따라 초·중·고 세 단계로 편성하여 운영
(전체 숙달도 6등급 체계)
- ② 특별 학급 형태의 운영: 과정 이수 후 원적 학급으로 복귀
- ③ 무학년 수준별 수업
- ④ 한시적 교육과정: 총 1년 2학기 체제(초급(1학기), 중급(2학기))

한국어(KSL) 교육과정 성취 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초급(1학기)		중급(2학기)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8. 한국어(KSL) 교육 담당 교원의 문제

- ① 현재 한국어 학급 등의 한국어(KSL) 교육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3급, 2급)나 퇴직 초중등 교사 중에 적합자를 선발하여 운영함
- ② 한국어교원들은 학교 내 정식 수업이 불가능하며, KFL 기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여 학교와 아동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③ 초중등 교원들은 한국어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함
- ④ 한국어(KSL)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및 인증 체계 필요

III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

1. 교육부

교내	교외	온라인
한국어학급	한국어 예비과정	모두의 한국어(KERIS)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교육부(2025),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1) 한국어학급

- ① 도입 배경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통해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② 연혁
 - 다문화 예비학교 도입 및 확대('12년~)
 - 한국어(KSL) 교육과정 도입 및 예비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12년~)
 - '찾아가는 예비학교' 도입 및 확대 운영('16년~)
 - '예비학교' → '한국어학급'으로 정책용어 변경('19년)
 - 2025년 현재 553개 학급(초 380, 중 92, 고 33) / 약 6,500명

② 지정

-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재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또는 공모
- 현황 파악을 통해 신규 편·입학 후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5명 이상 권장) 재학하는 학교를 우선 지정

③ 운영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난민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학교 적응이 어려운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정 가능
-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수가 입급 할 경우 학급을 증설하여 운영
- ※ 단, 일시적인 인원 증가 등 예외적 상황인 경우 탄력적으로 학급인원 조정 가능

④ 교육기간

- 6개월 ~ 4학기 이내
- 직영형은 최대 4학기, 위탁형(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은 1년 이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

(2)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① 도입 배경

- 한국어학급 미운영교에 편·입학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시각지대 해소

② 운영 형태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한국어강사를 파견하는 형태
- 지역의 일부 한국어학급을 거점학교로 활용하여 한국어강사가 방문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3) 한국어 예비과정(위탁형 예비학교)

- 한국어능력이 교과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 운영
- 위탁교육 형태로 원적교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 밖 기관에서 교육받고 출석인정 가능
- 지역 대학(대학 내 한국어 집중캠프), 복지시설 등과 위탁 협약하여 집중 한국어교육 실시
- 2024년 기준 전국 29개 운영기관 확보(예: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4) 모두의 한국어

<https://korean.edunet.net/lms/cm/mcom/pmco000b00.do>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운영. 2024년 3월부터 전국 보급 시작
- 진단 검사: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별 한국어 수준 진단
-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AI 분석 기반 추천
- 상호작용 학습: 음성인식, 필기인식 기술 접목
- 10개 국어 다국어 지원
- 교사용 학습관리 기능: 과제관리, 진도관리,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 제공

(5) 징검다리과정

- 교육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주관(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 공교육(초·중학교) 입학 예정 이주배경학생 대상으로 사전 준비교육 실시를 통해 학교 생활 조기 적응 지원
- 초등과정은 4~20시간 내외, 중등과정은 4~40시간 내외로 학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보통 1주일 내외로 집중 운영하거나 필요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학급당 학생 수는 5~15명 규모로 편성되며, 담당 교사는 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모국어를 고려해 다문화 언어 강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
- 학기 시작 전 1~2월과 2학기 편입 학생을 고려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
- 교육 내용: 학교적응, 생활한국어, 친구관계, 포래문화, 진로탐색 등

2. 여성가족부

(1) 센터 내 한국어교육

- 운영 기관: 전국 231개 기관에서 운영(가족센터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개)
-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지원 내용: 정규 한국어 과정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별반 운영

항목	설명
교육 단계	0~4단계 (한국어능력에 따라 분반 운영)
교육 시간	주 2~3회, 회당 2시간 내외, 연간 60시간 이상
교재	여성가족부 공동 개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재' 사용
교사 자격	KSL 교사, 한국어교원 2급 이상, 다문화 강사

- 이주배경 청소년은 전체의 약 5~10% 내외로 추정됨. 방과 후 또는 주말 참여가 많고 평일은 정규 수업 시간과 중복되어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움

(2)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 24세 미만)
- 지원 내용: 생활언어 습득 및 문화 이해를 위한 체계적·단계적 한국어 교육 제공
- 연간 약 17,000명 대상
- 80회기/회기당 40분 수업

(3) 레인보우스쿨(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만 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 중도입국, 북한이탈, 외국인가정,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진로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① 교육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한국어교육: 입국 초기부터 정착 단계까지 수준별(기초~심화)로 연간 200~400시간 제공.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검정고시 준비반도 운영

- 진로교육: 연간 60~100시간 제공. 직업탐색, 자격증 취득, 직업 한국어, 진로상담 등
- 사회적응 프로그램: 생활·문화적응, 안전·건강·폭력예방교육, 민주시민교육, 지역문화 이해활동 등
-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바리스타, 미용, 미술, 음악, 요리, 4차산업(드론 등) 체험, 야와 문화체험 등

② 운영 유형

- 입국초기형(입국 2년 이내): 한국어 및 지역사회 적응 중심(한국어교육 300시간, 특성화교육 60시간)
- 정착지원형(입국 2년 이상): 한국어, 교과보충, 검정고시 등(한국어교육 180시간, 보충교육 90시간)
- 혼합형: 입국시기별 혼합 편성, 지역 특화 프로그램(한국어교육 240시간, 특성화·보충교육 120시간)

③ 기타

- 운영 기간 및 지역: 연중(3~11월) 전국 21~26개 기관에서 운영
- 2024년 기준 9~24세 국외 출생 이주배경청소년 937명 참여

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 도입 배경

-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 2009년 법무부 주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도입
-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사회 이해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국가 주도의 이주민 통합 정책
- 2012년부터는 프로그램 이수 결과가 귀화 및 체류 자격 심사에 공식 반영되기 시작. 단순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이주민의 시민성 함양과 정주 기반 마련에도 목적을 둠

(2)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

- 200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 20개의 운영기관으로 시작하였고 2024년 기준 총 335개로 증가
- 외국인 인구 증가,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온라인 교육 도입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참여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운영기관의 수는 기관의 통폐합 및 효율화, 질적 관리 강화에 따라 감소하였음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교육참여자 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영기관수 (개)	348	347	339	339	335
교육참여자 (명)	36,620	43,552	42,163	58,028	70,949

<https://www.moj.go.kr/moj/2418/subview.do>

(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과 체계

구분	교육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가		-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 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참고		・ 각 단계의 평가는 해당 과정 수료 후 응시 가능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0~4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으로 한국어 학습을 기본으로 하며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한 학습도 일부 진행됨. 5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사회이해’ 과정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각 단계에서는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참여해야 수료로 인정되며 수료 대상자에 한해서 평가를 응시할 수 있음
- 1~3단계 평가는 필기 시험(객관식)과 구술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평가와 종합

평가의 경우 필기 시험에 작문형 문항이 추가됨

- 평가의 총점은 100점이며 60점 이상 득점해야 해당 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다음 단계로 진급이 가능함
-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정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1~3단계 재수강자는 두 번째 평가 시 점수와 관계없이 다음 단계 진급이 가능
- 반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재수강 후 두 번째 평가 시 41점 이상인 경우에만 합격으로 인정하는 최저점수제가 시행됨

(4)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관할 출입국관서), 거점 운영기관, 일반 운영기관으로 층위를 나누어 운영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운영되는 지역 기관에서 수업을 신청할 수 있음

① 법무부(관할출입국)

-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학사관리, 운영인력, 위탁사업비 집행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함. 주로 거점 운영기관을 통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관리·감독

② 거점 운영기관

- 거점 운영기관은 '거점운영기관'과 '중앙거점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위탁사업비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관할 일반운영기관 총괄을 포함하는 거점 내 업무, 관할 일반운영기관 감독 및 보고, 교육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③ 일반 운영기관

- 일반 운영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해당 내용을 거점 운영기관에 보고

※ 2024년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기관은 전국에 총 335개이며, 이 중 거점운영기관은 47개, 일반운영기관은 288개로 집계됨

운영기관 종류	주요 역할
중앙거점운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업비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 전국단위 업무 수행 - 단계평가관리, 구술시험관 및 전담인력 교육, 만족도 조사, 각종 행사 등 • 화상교육 과정 운영 - 화상교육을 위한 시설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총괄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포함) •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교육
거점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업비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 거점 내(관할 일반운영기관 총괄 포함) 업무 수행 - 교육프로그램 기획·총괄 (※ 거점 내 운영기관 교육과정 배정 및 조정) - 학사(평가시험 포함) 및 강사 관리 총괄 - 강사 추천 및 강사로 지원 등 일반운영기관 지원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감독 및 보고 - 관할 일반운영기관 감독 (※ 예산·인력·학사 운영 등 적정 여부) • 교육과정 운영 - 강의실·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포함)
일반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 여부 포함)

(5)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제문제

① 프로그램의 정체성

- 수강 목적이 한국어 학습과 한국 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기보다 체류 자격의 혜택에 맞추어지게 되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짐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이수하거나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단기비자(C-3-8 등)에서 장기비자(E-7, F-2, H-2, F-4 등)로 변경하거나, 거주비자(F-2)에서 영주권(F-5)으로, 결혼비자(F-6)에서 영주권(F-5)으로 전환할 때 필수 조건 또는 가점으로 인정받음. 영주권(F-5)이나 귀화(국적) 신청 시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별도 언어능력 입증에 면제됨)

② 평가 체계의 문제

- 구술평가의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저하

- 평가 문항의 부족, 기출 문제 비공개
- 단계별 평가에서 탈락 시 그 단계를 다시 수강(재이수)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음. 즉,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별도의 보충시험이나 유연한 승급 제도가 부족해 단계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학습 동기 저하
- 재이수 제도를 개선하여 시험 불합격 시에도 부분 인정이나 조건부 승급 등 유연한 옵션을 제공하고, 최저점수제 상향 등 평가제도의 유연화가 필요

③ 교육 내용의 문제

- 주로 언어·문화 동화주의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어, 다문화 및 다양성 존중, 경제적·사회적 포용 등 통합적 관점이 미흡
- 교육 내용이 실생활과 괴리된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실제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④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강화 필요

- 모바일 앱 개발, 다국어 안내 확대 등으로 접근 장벽을 낮추고, 신청 기간의 유연화, 절차 간소화, 현장 접수 창구 확대 등으로 실제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
- 이주민들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교육 일정과 접수 방식이 필요

⑤ 예산 부족과 프로그램 유료화 전환

-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를 부과(각 단계별로 10만 원)
- 2009년 도입 이후 전액 무료로 운영되어 왔으나 체류 외국인과 교육참여자가 급증(2024년 약 7만 명)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반복적인 재수강, 중도 탈락 등으로 인한 교육비 낭비와 학습 효과 저하 문제가 발생
- 교육의 실효성 제고(학습 의욕 고취, 무분별한 반복 수강 방지), 국가 재정부담 완화, 교육환경 및 품질 개선에 재원을 재투입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의 유료화 시행
- 그러나, 수업이 모두 마친 후에 수업료를 지불하는 후지불 방식으로, 학습자가 중도 이탈하거나 재수강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운영기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⑥ 지역별, 과정별 편차와 재수강 문제

-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경우 학습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학습 지속률과 단계 진급률 또한 높은 편이지만,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한 그 외 지역에서는 학습 지속률과 진급률이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임
-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가 해당 단계의 평가에서 탈락하더라도 동일 과정을 재수강하여 수료하기만 하면 점수와 관계없이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단계까지 진급하는 사례가 발생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저점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단계에는 해당되지 않아 학습자 능력 편차가 크게 나타남

⑦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주배경청소년

-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청소년 학습자의 참여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이들은 주로 10대 후반이며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비자 변경과 영주권 및 귀화 신청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됨

IV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안

1. 교육

- ① 교육 내용의 적절성 및 다양성
 - 언어적, 인지적 다양성 반영의 부족
 - 현행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교재는 학교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나 모국어 영향 등을 세분화하여 반영하는 데는 미흡(일종의 외국어 교육과정)
 - 연령대에 따른 언어 및 인지 발달 수준과 출신 국가의 언어·문화적 배경의 고려가 필요

② 공교육 영역으로서의 한계

- 한국어(KSL) 교육이 공교육 체계에 포함되었으나 일반 교과 교육과정과 달리 제도적 규제나 적용의 엄격성이 미흡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적 해석과 운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 내용 및 실행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균질한 교육적 성과 도출에 한계가 발생

③ 교육 자료(교재)와 교수학습 방법

- 현재 한국어(KSL) 교재는 2019년에 개발된 ‘표준한국어교재’ 1종만 존재
- 학습 목적, 학습자 배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 층위의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

초등용	의사소통 한국어	저학년용, 고학년용(총 2권)
	학습 도구 한국어	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총 3권)
중고등용	의사소통 한국어	1권~4권(총 4권)
	학습 도구 한국어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총 2권)

- 한국어 학습과 교과 학습의 효율적 성취를 위해 교과 교사와 한국어 교사가 협력하여 팀티칭을 진행하거나, 두 영역을 연계시킬 수 있는 협업 과정이 필요(교육과정 간 단절을 최소화)
- 공통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예: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어 학습 사이트) 구축과 디지털 학습 환경 강화(e-러닝 동영상, 모바일 앱 등) 필요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사소통 한국어) 저학년(1~2학년용) 1~4(4권)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사소통 한국어) 고학년(3~6학년용) 1~4(4권)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학습 도구 한국어) 1/2/3/4/5/6학년용(3권)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사소통 한국어) 1~4(4권)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학습 도구 한국어) 중학생용/고등학생용(2권)

④ 교사 역량과 전문성

- 현재 학교 교원을 위한 연수, 한국어 강사를 위한 연수가 별도로 진행됨
- 지역별로 연수 기회와 내용의 차이가 큼
-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원 수급을 위한 제도적 방법(인력풀 구축 등) 필요
- 교사 자격증 제도 보완(자격증 신설 혹은 장기 연수 통한 자격 부여), 예비 교원 양성과정 개편 등

⑤ 평가 체계의 문제

-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위한 표준화된 한국어능력 평가 도구와 지침 필요
(성인 vs. 아동 청소년, KFL vs. KSL)
- 동등한 학력 평가를 위한 평가 체계 개선
 - 일반학생과 동일한 환경의 학업 평가 → 공정성 문제
 - 언어장벽으로 인한 오답 발생 → 실질 능력 평가 어려움
 - 이중언어 병기, 용어 해설 등 언어 지원 제공

2. 제도와 행정

①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의 인프라 확대

- (가) 기존 기관과 프로그램의 활성화, 체계화, 협업과 컨트롤 타워의 구축
-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 사업의 상호 연계와 협업(레인보우스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현재의 지원 체계의 홍보 강화
- 이주배경청소년의 모집, 연계 방법의 구체화

(나) 가족센터의 방문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 검증된 기존 인프라 활용에 따른 기대감
- 교육 내용과 운영 체계의 적절성, 교원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

(다) 직업 교육 혹은 고용 현장과 연계한 한국어교육

- 직업훈련 기관이나 기능 관련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직무 한국어 과정 등을 개설

(직업훈련 + 한국어, 예: 레인보우스쿨의 자격증 과정)

② 예산 및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 이주배경학생 수를 반영한 가중치 예산 배정
-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나 지역에 추가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

③ 강력한 동화주의의 재고

- “완전한 한국어 구사가 사회적 포용의 전제조건”?
- 모국어의 억압은 자아정체성 혼란을 유발해 학업 동기를 저하
- ‘다중언어주의’ 관점에서의 다양한 언어적 허용과 지원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학교와 그 이후 사회 진입)

④ 사회 진출 이주배경청소년 멘토링 제도

- 실질적인 조언과 정서적 지지 확보 가능
-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도 큰 도움

⑤ 향후 AI 기반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체제 구상 필요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completely blank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콜로키움 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 제2차 콜로키움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인 쇄 2025년 5월 12일

발 행 2025년 5월 12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클로키움 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2차 클로키움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